

# 통일 · 대화 관련 통일부총리 연설집

1995년 12월 ~ 1996년 11월

통 일 원  
(남북회담사무국)

이 연설집은 통일·남북대화와 관련, 權五琦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이 행한 연설 내용을 수  
록한 것입니다.

※ 연설 제목은 연설 내용중에서 임의로 선정한 것입니다.

# 차 례

1. 『세계화』·『복안화』·『각론화』 ..... 3  
- 통일부총리 취임사 (1995. 12. 21)
2. 새로운 원근법으로 통일을 준비하자 ..... 7  
- 통일부총리 송년사 (1995. 12. 30)
3. 통일은 인내와 노력으로 .....15  
- 통일부총리 신년사 (1996. 1. 3)
4. 대북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 .....19  
- 『성우회』조찬 강연 (1996. 3. 28)
5. 대북인식을 재정립하자 .....33  
- 『방산학회』강연 (1996. 4. 8)
6. 북한은 4자회담에 호응해 나와야 .....46  
-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15주년 기념식 치사 (1996. 5. 14)
7. 4자회담 실현에 주변 4국의 역할 기대 .....50  
-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제5회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문(1996. 5. 17)

8. 대북지원은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58  
 -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찬 강연 (1996. 7. 10)
9. 『적』보다는 『동포』로서의 북한모습을 키워야 .....78  
 - 한국경제인 동우회 조찬세미나 (1996. 10. 9)
10. 평화없는 통일은 무의미 .....91  
 - 『나라미래 준비모임』강연 (1996. 10. 29)
11. 판문점이 『화해의 광장』으로 변전 기대 .....98  
 - 『자유의 집』신축 기공식 치사 (1996. 11. 13)
12. 사회적·문화적 통합에 의한 내면의 동질성 회복이 더욱 중요 ...101  
 - MBC 창사기념 제1회 통일방송 국제포럼 기조연설 (1996. 11. 27)

# 1. 『世界化』·『複眼化』·『各論化』

— 통일부총리 취임사 (1995. 12. 21)

먼저 이처럼 격식이 갖추어진 자리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 미처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문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고, 또한 통일과업을 추진하고 미담의 실험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추어라고 평소에 생각도 해 왔지만, 이왕 일을 맡게 된 만큼 그간 생각해 오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가·비전문가와 관련된 경험담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월남전이 치열함에 따라 미국 전역이 들끓을 때, 각국 기자들이 월간 『Atlantic』지 편집국장을 손님으로 초청하여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때 저명한 정치학자 칼 도이취는 그에게 “잡지를 만들 때 월남전쟁에 관심있는 전문가의 글을 실지 않고, 비전문가인 노만 밀러(작가)의 얘기를 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라고 묻자, “당신의 방식으로 한다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있는 웨스트 모어랜드 장군의 얘기만 써야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이는 어떤 사안을 놓고 납세자인 국민 다수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전문가들간에만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문제 역시 분단이 50년동안 지속되고 국민 누구라도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통일논의는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를 하나로 엮어 나가는 것이 통일원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하나의 줄기를 이루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요컨대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에 따라 강조점이 옮겨갈 수도 있겠지만, 통일정책과 논의를 전개하는 제 생각을 세가지 정도로 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일논의와 통일정책 추진의 ‘세계化’입니다.

통일논의는 오직 남북간의 문제이다,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는 열려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자주까지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통일문제는 우리만의 것이니 옆나라는 상관하지 말라는 것은 닫혀진 자주이므로 통일문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냉전시대는 이미 끝났으나 한반도는 그렇지 못한 상태이며,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흐름이 우리의 통일을 비춰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문제의 세계화이며, 통일은 오직 남북만이 해야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세계에 기여하고 세계와 함께 더불어 가는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좋아하는 값어치를 우리도 좋아하는 값어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계화인 것입니다.

세계화의 값어치는 정치적으로 민주화, 경제적으로 시장경제화, 인권

의 존중, 환경 보호 등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세계가 합의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통일 추구야말로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민주국가들끼리는 전쟁을 치루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민주화야말로 평화를 가져오는 길임에 틀림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통일이 바로 진정한 통일이며, 통일의 세계화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통일논의와 통일정책 추진의 ‘複眼化’입니다.

그동안은 남북 당국간의 논의가 중요하고 비당국 차원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고 얘기해왔던 것 같습니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북한 백성들이 우리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법원에서 “북한 공민은 우리 국민이다”라는 요지로 판결하였는데 이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만 생각하는 통일논의가 아니라 가장 고생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시야에 넣는 통일논의, 남북끼리만 논의를 하는 것보다 옆나라도 감안한 통일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개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복수의 눈으로 보는 복안적 통일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통일논의와 통일정책 추진의 ‘各論化’입니다.

한반도에는 냉전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데올로기의 승부는 끝났으며, 이제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것은 거두어 내야한다고 봅니다.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북에 있는 실체인 땅과 주민, 즉 의식주가 충족되어야 하는 사람과 그 지역을 정확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우리 농수산정책의 시야안에 들어와야 하고, 북

의 에너지문제는 우리 에너지 당국의 시야에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총론적·개론적 문제보다 각론적 논의를 강화하고 이에 토대를 둔 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동아일보 사장 재직시 산하의 통일문제연구소장에게 정보소통이 허용될 때 동아일보를 평양시민이 어떻게 받아 볼 수 있으며, 통일이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논의중에는 우리가 북한주민을 보면 불쌍하다, 시장경제도 모르니 훈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자기네 스스로 자발적인 개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개혁을 당한다고 느낄 때는 마음까지 어 울리지 않는 통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원의 역할은 각론의 중요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강화하는 방향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국가가 지향하는 과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러한 세가지 방향에서 통일논의와 정책을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한 우리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남북관계가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보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마음을 갖고 한 뜻이 되어 안팎의 환경을 잘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취임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2. 새로운 원근법으로 통일을 준비하자

- 통일부총리 송년사 (1995. 12. 30)

어느 해이든지 다사다난했다고 하는 것이 그 해 마지막의 감회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올해가 해방 50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맥락에서 그 뜻을 되새기는 행사들이 많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외국에 가서 해방 50년과 관련된 문제들을 주제로 한 회의에 참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러한 회의에 가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50년의 분단 역사를 되새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꺼리이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하기에는 지역적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단위다. '95년은 청·일전쟁이 일어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 때부터 우리 한국의 역사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것을 빼놓고 후반부 50년만 언급해서는 안된다.”하는 이야기를 특히 일본 사람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100년전에는 그다지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못했다는 점이 우리의 후진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우리가 ‘동학’이니 ‘인내천’이니 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것’이라고 가슴 뿌듯하게 얘기합니다만, 지금 전 세계가 으뜸의 가치로 꼽는 이른바 민주주의 사상을 동학 안에서 찾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년전에는 그런 생각조차 없던 때였습니다.

나라가 없어진다고 할 때 조야의 높은 지도층은 왕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제일 걱정이었지 ‘나라’라는 개념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 때의 나라는 군주의 것이니까 그럴 수 밖에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갑오경장만 해도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지만 지금 ‘그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별로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10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저는 해방될 때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6.25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 때는 군인으로 북한 땅도 밟아 보았습니다.

그 때 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고, 남북관계가 아무리 나쁘다 해도 50년대 보다 더 나쁘다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도리어 낙관적입니다.

통일원이 생겼다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입니다만, 우리는 통일을 향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 준비없이 맞았던 많은 사건으로 점철되어 온 지난 100년이었다면 앞을 내다보고 제일 큰 과업인 통일을 위한 준비가 조금씩 되고 있고, 생각도 그런 쪽을 향해서 가고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해는 좀 각별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각 언론기관에서 10대 뉴스를 선정하는데, 국제적으로도 일

본의 어느 신문이 선정한 10대 뉴스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이 3개나 들어있습니다.

또 저 혼자 생각해 보았는데, 통일원과 연관이 있는 것도 제법 큰 것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동안 많은 일을 구체적으로 해오신 여러분들은 더 꼽을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만, 남북분단사중에 15만톤이라는 쌀을 북한에 실어다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원 역사에서 10대 뉴스에 꼭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의 개인의 역사로 보면 연말에 통일원장관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 그것을 능가하는 뉴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는 각별합니다.

그러나 연말에 늘 느끼듯이 후련하고 좋았다고 생각되기 보다는 뭔가 덜 좋았다, 더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 올해는 그런 의미에서 더 각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더욱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단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시고 계시는 일의 범주 안에서 어느 것을 빨리 하고 어느 것을 늦게 하고 하는 시간표를 짜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거창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누구나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과 연관시켜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누군들 하기 싫어하겠습니까?

역사가 바로 서야지요.

역사 바로 세우기에는 많은 아픔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디디고 넘어선 저편에 과거를 제대로 청산해서 세우는 과업은 밝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지나가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내일, 모래의 역사는 몇몇하지 않을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프지만 해야 합니다.

통일 또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라는 얘기를 하면 가슴벅차고 누구든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통일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픔이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좋은 것만큼 비용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 일반적으로는 통일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으로만, 누구도 아프지 않고, 누구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공짜로 좋은 것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다가올수록 현실적으로 어떤 아픔을 겪어야 되겠느냐를 꼼꼼히 따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픔을 느끼지만 그것이 좋다고 껴안을 때 좋은 통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에 통일원이 나서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통일문제를 바라보게끔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만이 생각할 일도 아닙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이른바 전문가들이 어려운 얘기로 하는 통일논의는 통일이 아직도

말 때 하는 이야기이고, 통일이 다가올수록 일상의 말속에서, 일상의 단어로서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통일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겠느냐,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은 격으로는 상당히 높은 관청인데, 안팎에서 보기에 예산도 별로 많지 않고, 인원도 얼마 안되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통일원이 아닌 부서에서는 못하는 일을 통일원이 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과 인원이라면 제가 힘껏 노력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의 예산과 인원을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법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제 통일고문회의에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96년도 정부예산은 6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중 통일원의 예산이 360억이라고 합니다.

1,800분의 1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중요한 일은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로 결정되는 수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수행해 나가는 데는 우리가 높은 관청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예산도 더 많고 인원도 더 많은 부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기회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없어진다고 할 때 우리의 인식은 나라의 식 보다는 왕조지키기 였습니다. 나는 북한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른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개념과 김일성 가족과의 분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죽을 때 물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저 '천황폐하 어떻게'하고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나라가 개인화(personalize)되어 있다, 그러니까 국가와 사람이 연결이 되어서 묶여 있습니다.

그런 북한과 교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간 나라가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고, 정치, 법, 제도 등 개인화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북한과는 훨씬 다릅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원리를 믿습니다.

세상과는 담을 쌓고 남북한에만 이루어지는 통일, 이것은 세계화된 가치를 높이 삼으려고 하는, 세계화를 추진하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끼리 왕조를 세워서 다 해내자. 저쪽은 김씨니까 이쪽은 이씨가 하자 하는식의 통일이 될 법도 없지 않아 보이지만 그럴 경우 세계사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원자탄도 만들고, 실력을 발휘하자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계적 보편가치에 모순되지 않는 쪽으로 우리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 그 시야 안에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주민이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당국과 무엇을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 좋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픔과 비용을 생각하는 것이 각론화

입니다.

통일은 그저 하늘에 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통일문제를 좀더 가까이에서 보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그것이 좀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역사 운운하는 이야기가 많습디만, 통일원사, 통일정책사같은 것을 생각하는 안목에서 하루하루의 일을 해주시는 것이 통일원의 역사를 또한번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바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내년은 선거도 있고, 여러가지 벽찬 과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훨씬 넓혀서 통일을 내다보도록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사족 같습디만, 제가 좀 아는 분이 일본에서 건축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국제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해방이 되고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는데, 일본이 한국전쟁 이후에 조금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 당시는 건축을 화려하게 할 만큼 일본의 형편이 좋지 않아 아무도 건축을 의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생각하기를, 어느 지역이 불타서 없어졌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곳에 무엇을 지어달라고 건축의뢰를 해왔다는 가정하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일본의 경제가 일어설 때가 있었습니다.

안보소동이 끝나고 이케다 정권이 들어서면서 건축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설계도를 많이 팔아서 그 때 갑자기 더 유명해 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머리로, 조직도, 돈도 잘 활용해서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습관을 길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3. 통일은 인내와 노력으로

- 통일부총리 신년사 (1996. 1. 3)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께 ‘건강하십시요’라는 말씀이 제 당부의 전부입니다.

마음과 몸이 다 건강해야 통일로 내딛는 발걸음도 건강할 것이고 여러가지가 함께 건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지 한 열흘 지났습니다만, 너무 익숙하지 않은 일정에 맞추어 나가느라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한 사흘 쉬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 경우에는 방문객이 많아서 그 사흘이 더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초에 쉬면서 통일원이 대단히 바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뭔가를 내놓는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분석도 해야 되는 매우 바쁜 부처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내놓은 공동시설의 전문을 읽어 보니까 앞길이 대단히 멀고 어렵겠다는 것이 금방 느껴졌습니다.

몇 년째, 몇 십년째 그와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요리하고, 대처하시느라 많은 인내를 가지고 지금까지 일해 온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작년에는 광복 50주년이었기 때문에 뭔가 의미있는 해로 되새기면서 보냈습니다.

광복 50년이면서 한편으로는 분단 50년이었습니다.

마침내 분단이 반세기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남북에 정부와 당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세기 동안 숙제 하나 못 풀고 해를 넘겼습니다.

금번 북한의 공동사설을 보면서 그동안 통일문제 또는 남북관계가 주먹을 준비하는데 정력을 쏟아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주먹이 더 굳건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원이 생겨서 통일을 준비하게 되는 마당에 통일원은 주먹의 준비를 넘어서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또한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통일을 향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의 준비는 많을 수록 좋은 것이고, 그 준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주먹의 준비의 결과로 이루어진 통일보다는 우리가 소망스럽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근세사가 복잡해서 50년, 100년을 단위로 어느 날, 어느 해를 따지면 민족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해가 없습니다.

저는 신문사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이 발간된 것이 1896년 4월 7일, 그 날을 '신문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독립신문을 보면 그 당시 서재필 선생이 썼다는 논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통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변한 것 같은데 기본 줄기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그 100년을 되돌아 보면 여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100년째 되는 오늘 우리는 세계속에서 키가 성큼 컸습니다.

경제지표를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일류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구호만으로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세계를 향해 열려서 정말 일류답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끔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매불망 사무치는 민족의 비극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분단 50년은 흔히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가 선택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 때는 아마 나라를 4등분 한다고 했어도 우리가 그것을 막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외세가 한국을 둘로 나누어야겠다고 하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남이 나누어 놓은 분단을, 물론 나누어 놓은 그 사람들과도 화기를 잃지 않는 속에서 통일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의 주체가 남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스스로 다지면서 그 선두에 우리들이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쉽지 않았기에 50년이나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느날 갑자기 나는 천재니까, 나는 영웅이니까 하면서 이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착실하게 한발 두발 통일에 가까운 조건들을 만들어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오면 누가 압니까?

그 때를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통일에 임합시다.

우리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통일을 준비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새해 벽두에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4. 대북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

- 『성우회』 강연 (1996. 3. 28)

이렇게 아침 일찍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군을 굳건히 이끌던 체험을 살려 오늘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서 사회 각 분야를 지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마음 든든합니다.

조금전에 회장님께서 저에 대해서 짧막하게 소개를 하셨지만, 저도 6.25때 군에 갔었고, 여기에 나오신 백선엽 장군님이 그 때 저희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재홍 장군님이 영천에서 큰 작전을 하실 때 저희가 증원부대로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분단 50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중에 저희들이 언제나 북한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그들 보다 월등한 자리에 있고, 특히 지금 북한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적대하는 공산주의 정권이 있어서 그 정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체험을 통해서 겪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쓰라린 경험이 적은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북한도 우리 동포라는 감상적인 동포론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두 갈래의 상반된 북한관은 여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원은 우선 그 두 갈래의 시각을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 관청인데, 우리가 겪은 체험들이 너무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이 국내에서조차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통일원에 들어온지 이제 100일 남짓 됩니다.

뭔가 떠들고 외치고 하는 쪽 보다는 차분히 응시를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차분해지자 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일상의 일과는 달리 특히 통일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들뜬, 또는 들뜨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겠는데, 북한이라는 상대와 가닥을 잡아서 순서를 맞추어서 해나가기에는 대단히 어렵고, 신경 쓰이는 점이 많습니다.

먼저 요즘 북한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난, 체제불안정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상황은 어느 때 보다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미국의 언론인과 이야기를 했는데,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북한을 말할 때 꼬끼리 더듬듯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져보고 오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오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50년을 꿰뚫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대로 잘됐든 못됐든 안정되게

하나의 즐거움을 이루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사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은 아마 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도 잘 모르고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좀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며, 우방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큰 수해를 입어서 더 심각하겠지만, 수해가 없었어도 구조적으로 늘 배고프게 살 수 밖에 없는 것이 북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작년 수재로 인해서, 아무 것도 없으면서 그저 도도한 것으로만 통해 오던 그 리더십이 지금은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를 도와다오’하고 있을 정도로 형편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권력승계 구도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중해서 여러 가지 불안이 조성되고,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양으로 그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만 조금 넘는 인구에 110만이라는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 군대를 보통 백성들 보다 훨씬 잘 대접해준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수해를 안 입었어도 형편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어려운 것에 익숙해서 저 정도나마 견디고 있지 우리 같이 할 이야기 다 하는 사회 같으면 벌써 무슨 결단이 나도 났을 것입니다.

제가 외국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6.25당시 평안북도 태천에 국군 부대가 올라 갔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고구마가 상당히 있길래 ‘좀 주시오’했더니 할머니가 없다고 해서 ‘저것이 고구마가 아니냐’고 했더니 ‘아! 디과 말이요’ 그러면서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피난을 못하고 남아있는 할머니들이 모여서, 국군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였겠지만, 저희들한테 들려준 노래가 김일성 장군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장군 노래의 가사를 바꾸어서 자꾸 '죽장군'이라고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 때부터 배가 고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때는 전쟁중이었으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쟁이 있기 전에 김일성 장군 노래가 있었을텐데 그 때부터 '죽장군'이라고 불렀으니까 지금도 죽을 먹고 있는 것은 그 체제의 무능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쌀밥 먹고, 기와집에서 살고, 비단 옷을 입게 해준다고 하면서 그것이 거의 성취되었다고 하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을 하나의 정권유지의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아마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쌀밥을 먹고 기와집에 살고 비단 옷을 입게 되면, 생각을 그 이전과 달리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될텐데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좌우간 현재 북한상황은 절대적인 수요를 채우는 데도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를 볼 것 같으면, '90년부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년에 4.6%씩 마이너스 성장을 하니 지금 바닥이 다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사정과 관련해서 볼 때, 교역은 '88년도 50억불에서 작년에는 20억불로 크게 줄었습니다.

남북관계는 아직 관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막혀 있는데, 작년에는 교역이 전년에 비해서 50%나 늘었습니다.

작년 남북간의 교역규모는 3억불 정도가 되는데, 이는 북한으로 볼 때 세 번째로 큰 교역상대입니다.

그동안 북한에 있어서는 중국이 제일 큰 교역상대였습니다.

저희들의 잠정추계로는 작년에 일본이 중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6억불, 중국은 5억불 규모입니다.

그러나 1천억 수출 운운하는 우리와 비교하면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대만과 중국이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200억불 정도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왕래도 100만 이상이 됩니다.

주로 대만 사람들이 본토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에너지 사정을 보면, 더 말할 나위 없이 형편없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제철소가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해 보면 북한의 공장가동률은 30%도 안되는데, 그렇다고 70%가 남아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CNN의 부사장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는 북한의 수재지역 취재를 원했는데 가지 말라고 해서 못가고, 큰 체육관에서 마스게임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물었더니 난방을 하나도 안하니까 뭐 돈 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운 곳에서 난방도 없이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생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KEDO를 통해서 100만kw짜리 경수로 2기를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북한으로서는 아주 큰 것입니다.

KEDO가 보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울진에서 만들고 있어서 제가 보러 갔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감회를 느꼈습니다.

제가 '60년도 초에 동아일보 동경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그 때 일본 동경만의 오른쪽인 지바 지역을 개발해서 공업지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공장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섰을 줄 압니다만, 그 때 처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번 구경을 하러 오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바닷가에 큰 구조물이 보이길래 저것이 뭐냐고 했더니 동경 전력의 화력발전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200만kw 발전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 제가 알기로는 한국 전체의 발전량이 50만kw에 미달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발전소 하나가 어떻게 한국의 4배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틀린 것 같아서, 몇 만kw냐고 다시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이 200만kw라고 말하면서 바로 한국의 4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제공하는 경수로로는 1기가 당시 한국 전체 발전량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는 것이 그 4배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흐뭇한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가 제공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무기나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희 세대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북한의 대남 책동을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2~3년전에 나무랄데 없는 기본합의서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기본합의서의 합의와 비핵화선언을 하는 가운데서 핵개발을 하고, 간첩을 보냈습니다.

그냥 드러나는 태도로만 보면 서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의 말처럼, 관대하게 무시하는 것(benign neglect)같은 태도를 가지고 북한을 달래 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CNN의 부사장이 꼭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CNN 부사장은 평양에서 김용순을 만났었는데, 그가 “지난 1월 말에 대단히 획기적인 제안을 했는데 남한에서 대답이 없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북한의 성명이 나오면 그것을 분석하는 상당한 전문가들이 있는데, 획기적이라고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는 평양에 다섯 번 방문했는데 아홉 번 방문했다는 북경 특파원이라는 사람과 귓속말을 하고 나서는 1월 31일 정당·사회단체 대표가 모여서 통일을 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중에도 편지 받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CNN 부사장 보고, 북한을 취재하려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정도는 알고 가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가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니까 그대로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하면 되느냐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제안에는 남한당국은 배제되어 있다고 하면서 당국 아니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북한의 착각을 당신이 고쳐주려면 북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당국간에 얘기를 하여야 된다는 말을 했어야 했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는 남한 당국이 빠져 있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정체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문에 나고 해서 우리 여론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김용순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가 외국 사람한테 '남한에게 언제, 어디서나 만나자'고 했다는데, 그것은 북한이 늘 하고 있던 말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말로 한다면 새 단어도 등장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쓰고 있는 어법과 단어가 아주 제한되고 늘 듣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지난번 하던 얘기와 지금 얘기하고 뭐가 다른가를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북한동향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북한 군사력의 1/3 정도가 휴전선 가까이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을 6분 내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군기도 아주 정예는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미그 17, 19 같은 것은 앞에 배치를 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보기에 왜 이러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군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0년간 보아오던 상황이라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 현안을 보면, 김정일의 권력승계 문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갈래로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계를 안했지만 이것은 3년상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김정일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는 분이 상당수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일이 장악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 앞서 말씀드린 경제난이라든지, 또는 외교적으로도 혼선이 많은 것을 보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보고 있는 지도체제는 뭐냐? 대외관계 하나 효과적으로 처리 못하고 있지 않느냐? 무능하거나, 아니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보는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가르기 보다는 둘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을 대단히 중요시 하는 것 같고, 군에 업혀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많이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에는 사회주의가 잘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인민공화국이 잘났다고 하다가 지금은 김정일 체제가 위태롭다거나 김정일이 위태롭다고 좁혀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를 자랑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이고, 체제붕괴에 대한 대비로는 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군을 중요시하고, 군의 발언권이 저절로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북경회담 때 우성호 선원을 보낸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랫동안

안 안보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말에 의하면 우성호를 잡은 것이 군이었는데 함부로 내놓으라고 옆에서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때 송환을 제 때에 하지 못했다는 변명 비슷한 소리를, 드러내놓고 군때문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군을 원망하는 것 같은 장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제가 한갈래로 유효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김정일의 이상화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기록영화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안되는가 할 정도로 대단히 치켜세우는데, 하나는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 김정일이 훌륭한 지도자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인용해서 그 말을 뒷받침 하는 영화였습니다.

김정일은 사상이론이 투철한 지도자이고, 각 방면에 걸쳐 다재다능하다고 하면서 그 다재다능을 뒷받침하는 많은 것을 담아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통일고문회의에서 그 중의 하나를 보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고문들이 보다가 인내심이 모자라서 가버렸습니다.

영화를 보면 김정일의 경우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저술가이고, 모든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140분 정도로 비교적 긴 시간의 기록 영화를 보았는데 한 번도 김정일의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입을 벌려서 말하는 사진은 있는데 목소리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더니, 좀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혹

시 목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화는 김정일 자신이 선배를 섬겨야 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전에 자기네들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과 김정일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비추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배를 숭상하는 유교적인 감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존중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김정일이 말하는 장면은 역시 없었다고 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아마 7월 8일 3년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뭔가 달라지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 후를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북한체제가 조금 위태하니까 귀순자, 탈북자 해서 상당 수가 북한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상당히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쪽으로도 상당수가 왔습니다만, 벌목공 같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던 사람들, 그리고 북한체제에서 못견디겠다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90년대에 들어와서는 1년에 50명씩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쪽으로 넘어오겠다고 신청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10명 단위가 아니고 100명, 1,000명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꺼번에 그냥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해서 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과 다른 것은 상당한 지도급의 사람이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당장 무너져서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전문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말도 안맞을 때가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몇일전까지 자기 당대에는 통일이 안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많았습니다.

독일의 경우가 말해주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대비태세입니다.

얼마전에 샘 년 미국 상원의원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 말씀이 북한이 저렇게 통제(regimentation)가 철저한 사회인데 통일이 되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겠는가, 김정일 정권이 어떻게 된 후에도 통일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신있게 그 얘기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통제가 너무 심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북한은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으나 북한에 비해 남한이 전부 좋습니더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과제인데, 저는 샘 년 의원에게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우선 1944년의 일본을 아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자기는 그 때 너무 어려서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1944년의 일본을 밖에서 보면 꼭 이상한 사람들이 사는 집단처럼 보였습니다.

자폭하는 사람도 있었고, '천황폐하'하면서 만세 부르고 그 사람때문에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북한과 닮은 것 같습니다.



그 후 미국이 이겨서 상륙을 했을 때 미국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미국이 제시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잘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법 민주주의를 잘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제에 길들여진 백성들이라도 사람들의 본성으로 돌아오게끔 돌려놓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그들에게 익숙한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통일, 통일 하고 있지, 그것이 불가능하다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더니 샘 닐 의원도 제 말이 맞다면 동 의했습니다.

대답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북한당국에게 대화에 호응해 나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국만을 상대로 해서 통일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자꾸 흔들린다거나, 잘 모르겠다거나,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스타일만을 보면 그런 점도 없지 않겠으나, 그 실체(substance)를 보면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부 밖에 있을 때, 왜 자꾸 대북정책이 흔들리는가 하는 얘기를 하던 사람인데, 정부 안에서 보면 흔들림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통일이 금방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고 보며,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북한과의 관계를 좀 들뜨지 않고 차분함

속에서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뜻은 여기에 참석하신 모두가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5. 대북인식을 재정립하자

- 『방산학회』 강연 (1996. 4. 8)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와 백영훈 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만, 이런 모임에 저를 불러 통일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지금 북한은 그 얼굴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어서 어느 하나를 잡아 이것이 북한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단순화 해서 북한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공산당으로 우리와는 총을 맞대고 싸웠던 상대인 동시에, 같은 동포라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끌어 안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두가지 시각입니다.

이 두 가지 시각중에서 때로는 이것이 강조되고, 때로는 저것이 강조되고 하면서 50년을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는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일의 통일을 향하여 한발 두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휴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조금 옆으로 제쳐 두고 북한을 보아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지금 휴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50년을 돌이켜 볼 때 지금이 제일 희망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좀 더 낙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북한은 당 창건 50주년과 관련한 많은 기념행사를 했습니다만, 50년 기간중 가장 형편이 좋지 않을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의 사정은 아주 많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얼굴중에서 적대하는 얼굴쪽을 덜 보고, 같이 어울려 살자고 하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 조차도 과연 북한의 체제가 바뀌어서 우리와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북한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또 흔히 말하는 'soft-landing'이 그냥 말로 그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회의적 시각이 갈수록 짙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중시하는 우방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꽤 냉정하게 북한을 보는 미국의 어떤 분석가가 내일 또는 내주에 북한이 무너진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며, 또 5년 후에 북한이 그대로 있다 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그것을 뒷받침 할만한 이유는 다 있다는 것이 지금의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부사정에 대해 여러분도 신문지상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정보

분석을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런 것이 북한이다, 또는 저런 것이 북한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갈래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인 이야기는 북한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마 북한사람 자신들도 총체적인 북한의 모습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북한상황은 체제 해체과정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북한 밖에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김정일은 애도기간중 자제해 왔던 개인숭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 한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북한에서 내놓은 김정일 우상화 비디오 테이프 두개를 입수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비디오중 하나는 김일성의 교시를 중심으로 비디오를 찍은 것입니다.

비디오 첫머리에는, 김일성이 대단한 이론가, 철학자, 사상가, 저술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는 이렇고, 경제에 있어서는 이렇고, 문학이론은 이렇고, 뭐는 이렇고, 전부 김일성의 말을 입증하는 영상을 곁들여서 70여분짜리 비디오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보고 나니 너무 치켜올리는 것 같아서 좀 허망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비디오는 김정일 본인의 교시를 재구성하면서 우상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김정일이 혁명 1세대를 극진히 모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했고, 그 이야기에 맞추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그와같은 일을 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하는 것이 도리어 더 나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좀 모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껴줍니다.

한편으로 김정일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직 제자리를 못잡은 것이 아니냐, 충분히 유능한 리더십이라면 오늘처럼 북한을 만들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일반인이 느끼게끔하는 비디오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의 경우 최근 보도에도 자주 나오지만, 갑자기 군부대를 중심으로 시찰을 많이 다닙니다.

그것이 북한 텔레비전이나 영상물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는데, 그것도 군 총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을 그와같은 선전으로 채우고자 하는 의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을 중시하면서 아마 군을 앞세워서 어떤 불장난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50년 역사중 최악인 것 같습니다.

식량이 모자라서 굶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 세계가 하고 있을 정도로 식량사정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것은 작년 수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의 낙후, 비능률적인 협동농장 제도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수해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가 15만톤을 주었는데도 그것이

단쇠에 불튀기듯이 어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냥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에너지 부족 또한 대단히 심각해서 '94년 원유도입량을 비교해 보면, 북한은 우리가 들여온 원유도입량의 1.2%정도밖에 안됩니다.

'94년도에 우리가 7,803만톤의 원유를 도입한데 비해 북한은 91만톤을 도입했습니다.

북한은 '90년만 해도 252만톤인가를 수입했는데 5년 사이에 91만톤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정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전에 북한을 다녀온 CNN의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그 분 얘기가 자기는 수해지역을 보고자 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그 대신 실내체육관 같은 - 마침 올림픽에 선수를 보내겠다고 한 직후가 되어서 그랬는지 - 훈련하는 자리에 갔었는데, 전혀 난방이 안되어서 떨다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마 에너지난을 실감하게 해주는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 얼마전에 북한으로 보내고자 하는 경수로와 같은 노형의 울진원자력 발전소에 갔을 때 느낀 감회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0년대 초에 일본에 특파원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지바와 동경 사이의 공업지대가 완성되어 활기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한 30년전 그것을 만들고 있을 때 기자로서 취재차 갔었는데, 바닷가에 큰 구조물이 하나 서있길래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동경 전력의 발전소로 그 용량이 200만kw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총 발전량이 50만kw였습니다.

아무리 한국의 발전량이 적다고 하지만 한국 전체가 50만kw인데,

동경만에 있는 하나의 발전소에서 200만kw가 나올 수 있을까 해서 다시 물었더니 200만kw로 한국의 4배라고 했습니다.

'60년대의 우리 총 발전량의 4배를 북한에 보내기로 했으니까 그간 우리가 얼마나 발전해 왔는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60년대 초반 해도 모든 지표에서 북한이 한국 보다 앞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북한형편입니다.

또한 경제난의 심각성은 경제상장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90년대 들어와서는 매년 4.5~5%에 가까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이 이와같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진·선봉지대 개발이라든가 경제우선주의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어렵게 만든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2천만 인구에 100만이 넘는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보통 사람들 보다 군을 훨씬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줄이지 않고는 경제적인 출구는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긴장이 완화되면 군대를 줄여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큰 의문으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막대한 군비를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북한의 현실이 위조지폐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일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옳은



가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당국의 뒤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 주민과 같다는 생각으로 북한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을 때, 북한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감상적인 얘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 남북관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 미국의 샘 년 상원의원이 왔었는데, 하는 말이 “당신은 통일한다고 애를 쓰는 모양이지만 우선 저렇게 철저한 통제사회에서 자란 사람들과 여기 남한 사람들이 어울릴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어울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곳이 통일원이라고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것이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샘 년 의원에게 1944년의 일본을 아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너무 어려서 그 당시 일본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의 일본상황을 아는 서양사람들은 일본이 전후에 민주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때 특공대라고 해서 자폭을 하는 사람도 나오고, 다섯 아들을 다 죽인 어머니가 천황폐하를 위해 죽어서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사회가 바로 일본이었다. 그래서 많은 서양 사람들이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굉장히 무섭고 강하다는 말을 했지만, 일본의 오늘은 당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지 않느냐, 남북간에도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이 다수의 의견은 아닌지 몰라도, 북한의 경우도 지금 그 뒷편 어딘가에는 우리들과 같은 정서를 갖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샘 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통일을 내다보고 있는 셈인데, 저 자신도 6.25 당시에 비슷한 체험을 한적이 있습니다.

중공군이 참전하기 직전인 10월 하순경에 평안북도 태천에 들어갔을 때, 그 때 모두 피난가고 동네에는 할머니들만 남아있었는데, 그 할머니들이 국군장병들이 왔다고 기쁘게 해주느라고 김일성을 욕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한 것은 할머니들이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잘 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학습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가사는 바꾸어서 자꾸 ‘죽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부터 식량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할머니 같은 주민들, 즉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프다고 얘기하는 소박한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본 제국주의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다섯이 아니라 하나만 죽어도 울부짖어야 하는 것이 어머니인데, 다섯이 죽어도 천황폐하를 위해 죽어서 아주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선전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북한주민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본의 어느 평론가는 일본이 타락을 해야 민주주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 사이에는 민주주의나 백성들의 권리같은 것을 이야기 하게 되면 그것이 타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락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사람들 대부분은 사상적으로 하나의 틀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삶을 가짐으로써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을테니까 그렇겠지만, 어떤 충격이 가해지든지 충격이 아니라도 자기네들과 통하는 바깥의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간다면 많은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바뀌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나열하면 수 없이 많습디만, 그러나 저는 하나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렇게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움직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KEDO입니다.

최근 우리의 외교관이 포함된 KEDO관계자들이 북한의 신포지역을 다녀왔는데, 한 두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높은 사람들일수록 북한이 국제기구인 KEDO와 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KEDO사람들과 상대하는 것이지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는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도 같이 갔었는데, 실제로 원자로와 관계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북한 사람들 중에는 외교관이라고 하더라도 영어나 일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교관 표현에 의하면 기술자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로 한국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은 우리 기술자들이 일을 하다가 북한측에서 점심시간이 되었다고 했으나 일 마무리가 덜 되었으니까 점심을 작업장에 갔다 주면 점심을 먹으면서 일을 더 할 수 있다고 했더니 별난 사람 보았다는 뜻이 의아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집단농장이 잘 안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소나기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도 저녁 5시가 되면 털고 일어선답니다.

심야에 소나기가 와서 씨까지 다 흘러 내려가 버리는데도 아무도 거기에는 신경을 안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북한 사회주의의 노동윤리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일하는 것을 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하는 데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은 무엇인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어디로 옮기는 일이 있었는데, 뛰면서 옮겼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걸어서 옮길 수 있는데도 뛰면서 옮기는 것을 보고는 북한사람들이 정말 고마워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술자 레벨의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른 소리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끼리 하자는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외교관은 처음 북한을 가본 모양인데, 약간 뭔가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흥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참배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도 타보자 어디도 가보자 해서 봤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봐서는, 북한 주민들이 뭔가 초점이 없이 멍하고 있는 사람들 같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적인 일이 있다가 금방 다른 것이 또 한꺼번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북한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부활절에 북한에 가서 예배를 보겠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좀 시간을 늦추어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권해서 방북을 좀 늦추었더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무력시위와 부활절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은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하면서 동시에 북경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한 50년 이런 북한의 작태를 경험하니까 대충 윤곽은 보인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저는 가능한 낙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쪽입니다.

북한과의 얘기가 쉽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기도 했는데 그 때 보다는 오늘이 낫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자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희망적인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대로 북한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위축되는 속에 제가 아는 통계로는 무역규모가 '88년에는 한 50억불 되었다고 합니다만, '94년에는 20억불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과의 교역이 뭐가 대단하겠느냐고 생각하겠으나 그 전해에 비해서 한 50% 늘었습니다.

그 전해가 한 2억불 되었는데 작년에는 3억불 정도로 증대 되었습니다.

교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보낸 쌀이 비싼 쌀이어서 그것을 국제가격으로 환산하니까 2억 3천만불 되는데, 그것을 거기에 포함시킨다면 작년에는 5억 3천만불의 교역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억 3천만불을 빼고 3억불만 해도 일본, 중국 다음에 우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역량이 2,600억불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중에 3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20억불중 3억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고 유일하게 우리와의 교역만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형편없이 찌든 북한을 상대로 해서 그래도 재화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남한 뿐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북한이 빨리 이해를 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격포를 들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보다는 그래도 경제적인 재화를 들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더 우리 눈에 띄게 되는 그런 날이 남북간에 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판문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을 결코 조그마한 작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래까지 합해서 10년을 두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정도로 대단한 일이라고까지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합해서 산업쪽에서 무엇인가를 터나가는 것이 앞으로 남북간에 해야 할 일의 순서에 있어서 제일 앞에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시기가 남북관계가 상당히 적대적인 시기, 말하자면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먹으로 거래하는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쪽에서 해주어야 되고, 또 다른 곳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통일하는 쪽은 주먹보다는 머리쪽, 머리로도 모자라면 가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북한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많은 중점이 옮겨 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6. 북한은 4자회담에 호응해 나와야

-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15주년 기념식 치사 (1996. 5. 14)

민족통일협의회 송한호 의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15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1979년,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던 때에 통일꾼 운동을 시작하여 민족통일협의회를 오늘날 명실상부한 국민통일운동의 대중적 결집체로 성장시킨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일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애써오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통 회원 여러분!

북한은 지금 경제난과 체제의 불안정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일성 사망후 2년이 다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권력승계가 공식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90년부터 6년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과 에너지 부족은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곡물은 올해 수요량에 비해 200여만톤이나 부족하며 공장가동률은 30%에 불과합니다.

탈북자가 늘어나고 내부적으로 사회기강이 해이해지는 등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현상황이 당장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불안정은 구조적인 것입니다. 외부세계로부터의 일시적인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치유되기 힘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은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굳게 닫아 놓은 대화의 문을 열고 우리와 함께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안정을 이룩하는데 가까이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전세계가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 의존하며 공동번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도 평화와 협력에 바탕을 둔 새로운 질서의 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광복 50주년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올 4월 16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함께 제의한 4자회담은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더욱 구체화한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안정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해 나가는 일은 우리 민족이 이룩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에서 4자회담 제의가 나온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2년 2월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현재의 정전상태가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계속

준수하기로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의 정전체제를 일방적으로 무너뜨리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면서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4월초 판문점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며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도록 협박하였습니다.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체결 요구는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한 채 오직 미국과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를 해결 하려는 비합리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이같은 북한의 주장은 우리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방적 요구입니다.

4자회담제의를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 온 바도 충분히 고려하여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으로 반영한 ‘열린방안’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으며 광범위한 긴장완화조치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열린협의를 공간’입니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실현가능성과 법리적 타당성을 두루 고려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민통 회원 여러분!

정부는 4자회담을 한반도에 궁극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장기구도로서 차분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중국 등 유관국가들과 긴밀한 협의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남과 북이 당사자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해 화해하고 협력하는 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4월말 삼성·대우전자 등 3개기업에 대해 대북 협력사업자 승인을 내준 것도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기본방침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판문점 무장병력시위 등과 같은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책동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이에 대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도 열린마음으로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를 빌어 재삼 촉구하여 마지 않습니다.

민통 회원 여러분!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족화합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데있어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의 큰 흐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온 국민의 확고한 지지와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민통회원 여러분은 민족통합의 선봉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깊은 통찰력과 먼 안목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나가는 데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족통일협의회가 15년의 성상을 통해 민족화합의 큰 기둥으로 성장해 온 것을 다시한번 경하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 7. 4자회담 실현에 주변 4국의 역할 기대

-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제5회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문 (1996. 5. 17)

학술회의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먼저 민족통일연구원이 개원 5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에 관한 깊은 경륜과 식견을 가진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1945년 알타에서 시작되어 전후의 반세기를 지배해 온 냉전체제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는 인간의 자유와 번영을 향한 공동목표 아래 화해하고 협력하는 새 기운이 넘치고 있습니다.

분단국으로 남아있던 독일과 예멘은 이미 수 년전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최근까지 전쟁의 화염에 휩싸였던 보스니아와 중동에서도 평화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이 창설됨으로써 지역안보에 관한 다자간 대화·협력의 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엔도 창설 반세기를 넘으며 보다 ‘효율적인 유엔’을 향한 개혁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20세기 후반의 역사는 분명 커다란 진보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시계추는 50년 동안 그 자리에 멈추고 있습니다.

아직도 반세기에 걸친 냉전적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국들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부각되는 현실입니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해 온 동북아지역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유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역내에서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적 역할까지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북아 질서 창출에 주도적 몫을 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중국과의 안보협력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한반도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각국 정상의 긴밀한 움직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역동성을 실감했습니다.

이와 같은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력 확보경쟁은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정세를 보다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은 바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권력승계를 준비해 온 김정일이 실권을 행사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최고권력자가 사망한지 2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그 자리가 메꾸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비정상적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군령통치’에 의한 위기관리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는 종래의 구호가 ‘군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로 바뀌는 등 군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징후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1990년 이래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과 대외무역의 감소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식량부족은 주민생활을 위협하고 있고, 에너지난은 산업활동을 엄청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의 수해는 북한의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경제난의 심화는 나아가 북한주민의 탈출과 함께 북한사회 내부의 일탈현상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남 적대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대내적인 통제와 결속을 도모하고 있는 듯도 합니다.

북한은 다른 한편으로 대미·대일 관계개선을 서두르면서 나진·선봉지대 등에 대한 제한적인 개방을 조심스럽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개방·개혁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해결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북한의 어려움이 자칫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주변 4국의 일차적 관심은 북한의 '질서있는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지 않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은 남북관계와의 '조화와 병행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진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건설적 변화보다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고무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과 동맹관계를 지속하면서 북한지도부와 긴밀한 인적 유대를 유지해 온 중국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또한 과감한 개혁과 폭넓은 개방을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해 온 훌륭한 앞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안내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로서는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주변환경의 안정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러시아 또한 그동안 개혁·개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정치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도 북한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제안정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노력이 몰린다면 동북아의 안정을 굳건히 하는 소중한 밑바탕이 마련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한반도에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올 해로 만 43년이 됩니다.

이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본격화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남과 북은 '92년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나가기로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93년 4월 중감위 체코대표단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이래 정전체제를 와해시키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왔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의 당연한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북한은 세차례의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내 무력시위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16일 한·미 양국 정상은 공동발표를 통하여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의했습니다.

4자회담 구상은 분단 반세기의 대결과 반목을 청산하여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려는 진지한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과 정전협정 관련당사자인 미·중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바탕한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우리는 4자회담 틀을 제시함에 있어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였



습니다.

이 제안은 ‘열린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4자회담의 의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열린 협의의 공간’을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한·미 양 정상에 ‘광범위한 긴장완화조치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천명한 점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북한의 안정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과 얼마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북한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이는 동족인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해 오면 한반도에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통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위해서 북한은 우선 4자회담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 장기적으로 4자회담이 동북아지역 전체의 다자간 안보협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는 일은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변 4국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해 4자회담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를 당부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분단된 민족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입니다.

이념, 체제, 정치, 군사... 그 어떤 논리로도 원래 하나이었기에 당연히 다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민족의 열망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주인공은 바로 한민족,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스스로가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홀로 이룰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그러했고, 북한핵문제나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오늘의 현실도 그러합니다만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주변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특히 주변 4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아래 통일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진전과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통일을 추구할 것입니다.

자유·인권·평화·번영·호혜·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의 통일을 우리는 이루고자 합니다.

마침 우리 눈앞에는 21세기 태평양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에는 한반도의 위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의 땅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중심지가 되려 합니다.

한민족의 통일은 북한 지역도 시간적으로는 ‘21세기화’, 공간적으로는 ‘세계화’됨으로써 한반도 전체가 인류와 세계에 함께 공헌하는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통일의 목표이자 한민족의 비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고자하는 말씀은 분단된 한반도보다 통일된 한반도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더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21세기 세계사를 더욱 빛나게 할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회의가 그러한 계기마련에 큰 도움을 주는 매우 유익한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8. 대북지원은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

-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찬 강연 (1996. 7. 10)

우선 이 자리에 초대되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력 소개도 있었습시다만, 저는 40년동안 신문사에 몸담고 있었습시다.

그래서 처음에 통일원의 일을 맡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뚝 위에 서있는 사람은 밑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어디로 간다 하는 것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리로 가시오 저리로 가시오 하는 훈수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40년을 지내온 셈이 되지만, 훈수한다고 해서 갑자기 물속에 들어가서 네가 헤엄쳐라 하면 못칩니다. 그래서 제가 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듯이 지냈던 것이 잘못알고 있었다고 할까, 혹은 북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기회로 한 6개월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가끔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희다 하는 것은 봉사도 다 알고, 숲이 검다는 것도 봉사도 아는데, 눈앞에 흰종이를 갖다 놓고 무슨 색깔이냐고 하면 봉사는 모릅시다. 검은 먹도 갖다 놓고 물으면 모릅시다.

우리가 지금 북한을 알고 있는 것이 봉사가 눈 색깔 알 듯이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눈앞에 어떤 것을 갖다 놓고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이 북한입니다.

또 우리뿐 아니고 우리 보다도 예산이 많은 미국의 무슨 연구소, 무슨 재단, 미국의 CIA등등 예산도 많고 사람도 많은 부서에서도 북한의 사정이 오늘 현재 어떻다는 것을 딱히 짚어서 얘기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잘 모릅니다.

저는 요즘 외국사람들도 종종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묻는데, '잘 모른다'는 것을 핵심용어(Key word)로 대답합니다.

아마 모두 김정일, 김정일 하는 얘기를 매일 하고 있고, 북한은 김정일이 확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김정일에도 잘 모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체제가 유능하고 유효한 통치를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밖에서 보고 있듯이 북한의 사정이 저런 것을 그냥 민첩하게 대응하지 않고 그냥 들리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북한에 아사자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제가 본 북한의 텔레비전에 나오는 북한 어린이들이 하는 행사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어린이들을 주라고 여기에서 분유를 보냈는데, 분유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아주 토실토실한 애들이 그렇게 뛰는 것을 잘해서 상도 타고 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아무리 배짱이 좋기로 북한의 산간 벽지에서도 텔레비전은 볼텐데, 옆에서 굶어죽는 아사자가 있는 환경속에서 그런 텔레비전 뉴스를 한

다고 선전·선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태연히 그런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관해서 아사자가 있다는 것을 듣는 반면 그 사람들의 관제필름을 보면 자기네들 말대로 러시아보다 훨씬 더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모순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와같은 텔레비전의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무슨 원조를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쪽에 서는 분들은, ‘봐라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사자가 있다 하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미국 목사가 가서 더 제대로 보고 왔다고 하면 ‘쌀을 무조건 주자’하는 사람들은 ‘봐라 말이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입니다.

저는 북한을 물론 많은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이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짐작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제 원체험 중의 하나인 북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옛날 얘기가 돼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6.25때 군인으로 복진하는 부대와 같이 평안북도에 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군이 올라가니까 모두 피난가고, 거기에 남아있는 할머니들이 모여서 우리들을 환영하는데, 그 할머니들이 그 때 벌써 김일성장군 노래를 가사를 바꾸어서 ‘죽장군’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때는 전쟁 때였으니까, 잘 먹이지 못해서 ‘죽장군’이라는 소리를 했는지 몰라도...

북한지역은 나라같은 것을 만들기 전부터 식량이 풍부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1980년대 후반 동구국가들이 여러 가지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던 모순이 커져서 무너지고 나니까 북한의 경우는 자기네들이 연설에서 시인하듯이 교역대상국 중에 70%를 차지하던 것이 사회주의권과의 교역이었는데, 그 교역이 어느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70%가 없어져 버렸더라 이것입니다.

전 세계가 자본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돈이 있어야 거래를 하는데, 돈은 없고, 70%나 되는 교역이 없는 그런 속에서 경제를 뛰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말로서는 주체경제는 안 버립니다.

그리고 교역은 동남아시아는 좀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인지, 지금 그쪽을 뚫고 들어가기 위한 것을 준비도 하고 배우려 한다면서 ‘여러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미국, 일본을 다니면서 하는 소리이고, 그 일부를 터놓고 좀 배우고자 하는 시범지역이 나진·선봉지역입니다.

대단히 효율성이 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곳곳에 스며있는 교조주의가 그때 그때 구체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또한 긍정적 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붕괴가능성에 대한 여러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그리고 군부가 중추가 되어서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군과 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때 마지막까지 넘어가는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과 당 밖의 변두리는 벌써 눈에 띄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라고 할 때 어떤 제도(institution)를 의미하며, 또한 그것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그때 그때 그 어떤 제도 또는 기관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국가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유사한 것을 일본제국주의 시절에 봤습니다.

일본제국에서, 아마 헌법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십니다만, '천황이 일본제국의 제일 높은 기관이다'라고 말했던 미노베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지금 동경도지사 하는 미노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천황기관설 때문에 그는 결국 동경대학 교수 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천황이 주권자입니다. 일본국이 있고 그 국안에 천황이 높은 기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국은 천황이 갖고 노는 도구였습니다.

천황주권설입니다.

지금 북한이 제가 보기에는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히 '당국자 나와라'하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제도(institution)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은 내가 보기에, 군대, 좌우간 폭력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의 마지막 보루로 얘기하는 군대가 국가의 군대라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 이것이 그들의 구호입니다.

'인민공화국 만세'하는 사람 별로 없고 늘 '김일성 만세'입니다.

우리는 동격으로 이렇게 하지만 제도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그것이 우리하고 많이 동떨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은 그렇게 다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조, 교리는 완전히 우리와는 다른 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북한을 보는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의미이지만 또하나 예를 든다면, 이번에 KEDO협상을 하는데, 남한에서 북한에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에 주재하면서 일을 할텐데 그 사람들이 혹시 북한의 법률을 위반해서 뭔가 잘못 됐다고 할 때, 뭐를 하면 잘못된 것이 되며, 그 잘못된 것을 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재판을 받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당신들에게 재판을 맡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위반한 사람은 어떤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아무것도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신문에도 많이 봅니다만, 즉결 처분을 했다거나 현장에서 총살했다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공제도를 통해서 재판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 위가 법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밑의 주민생활까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 그러한 제도 하에서는 우리 한전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당신들 재판에 넘길 수가 없고,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고, 결국 그쪽에서 졌습니다.

KEDO가 가지는 영사 관할 밑에서 우리 사람들은 이쪽에서 재판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말하자면, 제도·국가·기관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상대로 지금까지 한 50년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굉장히 많은 별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북한이라는 상대가 이러하고, 또 대북정책이란 것이 모든 정책을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닌 것이 많고, 특히 보안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모든 절차를 하나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떤 때는 일관성이 없다는 소리도 듣고, 어떤 때는 독단으로 했다는 소리도 듣고, 어떤 때는 우리의 법절차가 아니라 통치권의 어떤 조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비하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통치하는 근본적인 모습이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하면, 그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난 분단의 역사를 뒤돌아 보면서 그 안에서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최근의 북한은 어떠냐?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선 제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던 관계로 해서 어떤 큰 사람이 하나가 죽으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백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의 북한인 것 같습니다.

만일 김일성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 했는

가? 그 권위를 누구에게 갖다 맡겨서 그것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저 혼자 공상같이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일이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데서 오는데, 일종의 성가족 같은 것이 지배하는 제도, 그런 제도가 북한이기 때문에, 마침 김정일이 있어서 후계자처럼 되어 있지만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의 어려움은 물론 여러 가지 통계수치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중 제일 큰 어려움의 하나가 ‘세계화’ 추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지금 정치구호 같은 것으로 세계화를 많이 얘기합니다만 세계화는 지금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간에 자꾸 진행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속된 말로, “야! 우리가 테두리 쌓아놓고 우리 안에서 인민을 죽이든 법치를 안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나”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또 이렇게 하고 살 수 있으면 북한은 대단히 오래 갈 듯 싶습니다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의 고민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지금 지구상 어디에서 특별한 일이 생길 때 그것이 곧바로 전세계의 관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부담이고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화의 얘기를 하면서 저는 예로 드는 것이, 버마같은 데서 지금 아웅산 수지여사가 어떻게 한다 할 때 한국에서 뭐 그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 한말씀 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뉴우스이고, 그것은 미안마의 현상을 고쳐가는 데에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집니다.

미얀마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스니아가 어떻다거나, 소말리아가 어떻다거나, 국제연합이 그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우리는 다 응분의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지금 그쪽에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북한에 학살이 일어나거나 기아가 발생할 때, 이것 역시 세계의 관심을 모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그냥 국경만 잘 지키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북한 문제를 우리와 북한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데 남북 관계와 대북정책의 어렵고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북한에 쌀지원을 하고, 그 후에 상당히 강하게 그와 같은 지원을 다시는 안하겠다 하는 쪽으로 돌아서서 있다가 이번에 국제연합을 통한 지원을 일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일관성이 없다고 운운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북진통일을 평화통일로 바꾼 것이라면 이것은 일관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상대로 해서 지금 평화·화해·자주 이런 쪽으로 이것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는 선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쌀 준 문제를 가지고 외국 사람들과 주고 받는 이야기를 한 두 말씀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준 15만톤의 쌀이라는 것은 금액으로 따져서 2억 3천만달러 됩니다.

한국이 건국한 이후에 그만한 크기의 원조를 해준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큰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원산지 표시도 하지 말라’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내세웠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관용입니다.

우리가 약세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수해 이야기를 밖에서 많이 합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준 쌀은 수해가 있기 전입니다.

쌀을 처음으로 보낸 날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은 아마 수해가 있는 다음에 떠나갔을 것입니다.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은 단순히 수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작년 저희들이 준 쌀의 원조가 말하고 있습니다.

분단 50년 역사중에 그와같이 관대하게, 그와같이 큰 몫을 한꺼번에 주었다는 것은 대단히 기억할 만한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듯이 지우개로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쌀을 준 것이 잘못됐다거나 아무리 해본들 그들에게서 따뜻한 무엇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더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낸 것은 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뜻이 담겨져 간 것입니다.

쌀은 먹고 없어졌을지 몰라도 그 뜻이 크게 뻗어나가고 커나가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6.25를 상기하는 행사들이 많았고, 6.25를 상기한다 할 때는 언제든지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을 상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99% 그것을 상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쌀 준 6.25도 6.25인데 한 1% 정도라도, 올해가 1주년인데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키워나가지 못하면 통일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항상 한국전쟁 때의 6.25만을 상기해가지고는 통일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만이 아니고 쌀의 6.25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되 아직 그것을 크게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50년 긴 역사 중에서는 그런 6.25도 하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니까 또 하나 연상되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300만불을 국제 적십자연맹을 통해서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100만불은 한국의 분유를 사서 보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있는 직후에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존경받는 어떤 분이 “2억원 상당의 분유를 그냥 정부에 드릴테니까 그것을 북한에 보내는데 보태서 써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에서 이것을 지출해서 100만 달러어치를 사기로 했기때문에 제가 그 분에게, “적십자로 보내셔서 북한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시지 왜 정부를 주시려고 합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조금 우물쭈물 하시다가, “부총리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실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내가 이북 출신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때까지 “이북 출신이시니까 더 보내실만한데 왜 적십자를 통해서 못보내겠다고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북에서, 말하자면 북한에서 쫓겨내려 오듯이 와서 여기에 사는 분들은, 북한이 어려운 상태라고 해서 바로 도와주지 못하겠

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에 바로 뭔가를 도우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주실 경우 한국의 분유가 대단히 비쌉니다. 국제 분유값의 3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유를 100만볼어치를 구입할 경우 국제값으로 사는 분유의 1/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혹시 2억원어치를 받으면 한국이 주는 몫으로 더 보태서 주면 모양새가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한편 하면서 “그 준비는 농림수산부가 하니까 그러면 그 쪽으로 연락을 해서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일담이지만 복잡한 우유의 정치학이 거기에서 나오니다.

UNICEF담당관이라는 사람이, 북한은 지금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으니까 우유에다 비타민을 섞어서 갈아가지고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분유를 준비한 상태이지만 UNICEF의 요구대로 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알아보니까 한 20만볼 더 든답니다. 그러면 20만볼 깎아야 되니까 분량이 더 줄게 되었습니다.

또 분유에 ‘홀 밀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드라이드 홀 밀크’라는 것은 지방분을 빼지 않은 밀크입니다. 지방분을 빼지 않으면 북한 애들이 설사를 할지 모르니까 지방분을 뺀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탈지 밀크’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분이 주겠다고 하는 밀크는 탈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은 도저히 받기가 곤란합니다”라고

했더니, 그 분이 그것을 적십자로 보내서 적십자 쪽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십자연맹이 그것을 좋다고 해서 곧 아마 7월달 안에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저는 그것이 분유가 어떻다, 또는 분유의 양이 어떻다, 달리가 어떻다가 아니라, 아까 제가 이북 출신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분의 마음이 적십자로 보내기로 바뀐 것, 이것을 저는 대단히 고맙게,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단 50년을 보내다보니 온갖 일이 다 있었습니다.

역사학도가 쓰면 책 두, 세권은 될 것이고, 심리학도가 쓰면 더 많을 것이고, 경제학도, 정치학도로 범위를 넓혀가면 아마 열권 백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첫머리에 말씀드린 것 같이 봉사도 아는 북한론 보다는 이렇게 갈래를 잡은 각론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의 쌀 사정을 계속해서 통일원이 중요한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동안은 남북관계가 그렇게 가까운 것이 아닐 것이라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쌀 사정을 우리 농림수산부가 자기네 문제처럼 생각을 하는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를 위해서 통일원이나 관련부서는 도움을 드리고 준비를 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정이 대단히 나쁘다 하는 것은 몇개의 경제적인 수치를 보면 감지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말에 북한의 교역이 55억불 가까이 되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20억불이었습니다.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쌀 사정은 올해는 작년에 있었던 수해를 가지고 큰소리를 많이 합니다만, 수해복구를 못하고 있는 곳이 반 이상이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가을에 있을 수확은, 작년 보다도 어쩌면 더 못할 것으로 추정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이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통틀어서 작년에 수해 입기전에 이미 우리와 일본이 북한에 식량지원을 안하면 안되었던 사정을 보면, 앞으로 두고두고 북한은 식량사정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 나가는 길은 농업기술을 갑자기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쪽으로 많이 벌어서 외국에서 쌀을 사먹던가 해야 될텐데, 그 사먹을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이 북한의 사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김정일이 김일성의 권위라고 할까 그런 것을 전부 이어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대를 중시하고 또 군대안에 제1세대라고 할까 군원로들을 높이 모시면서도 실권자리에서는 서서히 물러나게 하는 작업이 진행중인데, 그것이 대단히 어렵고 힘겹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을설이라는 개인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김일성의 경호 총책임자였다는 이을설 같은 사람이 원수로 올라가서 지금 김일성이 누워있는 궁에 그냥 같이, 그 궁 담당의 제일 높은 사람으로 모셔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진시황하고 같이 묻히는 것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세대에 속하는 분들을 그렇게 퇴진시키고 있는 작업,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봐서 김정일이 금방 북한 권좌에 올라 앉아 자신있게 북한을 다스려 나가는 것은 뭔가 아직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년상을 만 3년으로 한다고 해서 늦추고 있는 것이 그런 정치적 사정이고, 경제는 지금 보기에는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나진·선봉지역 개발이라는 것도 김일성 살았을 때부터 굉장한 힘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 비디오를 제가 봤습니다만, 김일성이 죽기 바로 직전에 공개된 자리에서 활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서 책상을 치면서 강조하는 것이 나진·선봉지역 개발을 왜 저렇게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비디오만 제가 본 것으로는 김일성이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좀 흥분이 된 것 같은 상태에서 나진·선봉개발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 말아서 일을 추진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완전히 종류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그 지역에 주둔하는 조그마한 군대의 부대장이 갖가지 군사적인 이유를 들어서 거기에 철조망은 저기로 쳐라 하면 그것이 또 며칠씩 가고 이렇게 비능률이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30 몇 억을 투자한다고 처음에는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4억 얼마로 축소가 되고, 지금 됐다는 것이 한 2천만불 정도 들어온다

만다 하는 정도로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단설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시범공단을 40만평정도 지도상에 구획은 했는데, 그 공단을 조성하려면, 우선 공업용수가 어디에서 와야 할텐데 그 물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물이 아무데도 없는데 지도상에 그림만 그린 것 같은 그런 계획이 아직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우리 지세라든가 이런 것에 밝은 남쪽의 노하우가 들어가서 뭔가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인 감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이 되어서 그것이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관성 문제와 연관해서, 저는 이번에 북한에서 15만톤 받아갔는데, 그 중에 군량미로 간 것이 있고 어떻게 하니까 꼭 그것을 준 것이 잘못 된 것 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무슨 정치적인 의도에서가 아니라, 남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에 대한 평가를 평양에서 받도록 만드는 그러한 전반적 틀(setting)이 좀 잘못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5만톤을 줬는데 북한에서 군량미로 전용안하고, 태극기를 그냥 달고, 또 배를 잡지 않고 그랬으면 그것은 좋은 정책이고, 북한에서 잡았으니까 정책이 첫머리부터 잘못되어서 나쁘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많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평가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그런식으로 계속 평가를 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것을 형편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평양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

입니다.

지난번 경우도 형님이 공부하라고 돈을 줬더니 동생이 술을 먹고 덤볐다, 그러면 술먹은 동생이 나쁘다고 평가해야지, 돈준 형님이 나쁘다라는 평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형님이 동생이 공부하는데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다 알아가지고 쓸만한 보장이 있을 때 주어야지, 자꾸 주면 자꾸 술먹고 덤비면 되겠습니까라는 반문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한도안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형님이 또는 아버지가 어떤 때는 돈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벌을 주느라고 종아리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종아리 때릴 때와 돈 줄 때를 놓고 그 아버지가 애를 다루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종아리 때릴 때나 돈을 줄 때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느냐, 되도록이면 지금 아프게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지나치지않을 정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를 무시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든가 동기만을 가지고 결과를 얘기한다든가 하는 것이 때때로 맞지 않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평론이 많다 하는 것은 다른 경우에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폭 넓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북한문제는 전문가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떠한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푸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의 중요성은 그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론이나 아니냐에 문

제가 있지, 그 이론이 무슨 정합성에 맞추어서 맞느냐 안맞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논리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또하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자들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교차승인이니 하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한이 중국, 러시아하고 관계를 가지면 북한이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가져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안정된 변화가 나와서 그것이 통일의 기반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학자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술회의에 가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아져서 미국의 영향력이 북한으로 들어가는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분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연락사무소를 교환하기로 가령 합의한다면 이것은 한국 외교의 대단한 패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논리이고, 한쪽은 다분히 감정적인(emotional) 것입니다.

그런 양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 북한문제입니다.

얼마전에 미국의 브레젠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질문하는 중에서, 당신네들은 남아연방에도 핵이 있다고 하고 파키스탄에도 핵이 있다고 하고 이스라엘도 가진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원자로 하나 안해주면서 북한에게는 비핵화선언을 한지 몇 달 안돼서 NPT 탈퇴라고 나서니까 원자로를 갖다 준다는 것은 뇌물주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것이냐, 말도 안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브레젠스키는 이론적으로 보면 당신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딱 맞는데, 현실적으로 자기는 한 두 가지쯤 북한에 대해서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옆에 일본이 있어서 북한에서 핵폭탄을 가지면 일본이 안가질리 없고, 일본이 가진다는 것은 진짜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북한의 핵은 어떻게든지 못 가지도록 봉쇄(contain)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남아연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아연방이나 파키스탄은 그래도 그 리더쉽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일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하자면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 있는데, 북한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우선 좌우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지상의 명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논리만으로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꾸로 우리에게 당신들은 얘기를 해보면 전부 북한은 믿지 말라고 하는, 말하자면 강경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경파니까 북한이 어떤 소리를 해도 믿으면 안된다고 하지만, 이런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그럼 할 수 없다, 영변 폭격이다라는 결론이 나면 한국은 강경파고 온건파고 다 나서가지고 절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논리냐는 것입니다. 우리측에서는 상당히 답변이 궁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쟁을 치러본 사람으로서 논리, 이런 것만 가지고 안되니까 우리의 그런 반응, 비논리의 반응까지 합한 것이 우리가 다루어야 될 대상이고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북한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면했더랬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북한문제와 남북관계를 이해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 9. 『적』보다는 『동포』로서의 북한 모습을 키워야

- 한국경제인 동우회 조찬세미나 (1996. 10. 9)

오늘 모임은 중견기업인의 모임으로서 ‘중견’이라는 말에는 제 나름의 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달 9월 중순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을 모색코자 하는 취지의 나진·선봉지역 투자설명회에 우리 측 기업이 참여하고자 했을 때 ‘중견기업’이라는 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세계에 널리 알려진 대기업보다 중견기업들이 참여하여 그곳 현지 사정을 관찰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그들을 돕는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 무엇인가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투자설명회 참가가 성사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많은 정치적 요인 등이 개입된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잠수함이 북한을 출발한 시점이 13일이었다고 합니다.

돌이켜보건대 투자설명회가 9월 13일에 시작되기로 되어 있어 한편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른 한편으로 잠수함을 침투시키는 상황에서 북한측은 상당히 분주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특성이며 이와 같은 일들이 남북관계에서는 빈번하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외부로부터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북관계상황에서 일관성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일관성을 봄과 가을 동일한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일관성의 어의(語義)에도 맞지 않을 뿐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여겨집니다.

국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버지나 형님이 아들이나 아우를 훈계할 때 때로는 매질을 하고 때로는 돈을 주어 달래는 일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관성과 관련하여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일관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대북정책의 기초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기초는 간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평화정착 없이 통일로 나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평화의 정착은 통일의 첫걸음이며 그것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문

제인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연관이 있는 것, 실례로서 제네바 핵합의나 4자회담 개최제의 등이 우리의 정책기조입니다.

그러한 테두리내에서 북한이 저지르는 각종 도발 등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점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댓가는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적정하게 치루는 것이 옳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던 듯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며 이는 적대관계에 놓인 선례의 국가들이 교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비록 사소한 일에서라도 댓가없는 일은 없다는 것을 서로의 관계에서 확인하고 넘어갔던 것을 좋은 교훈으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추진 과정에서는 베트남 등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분단국가들이 자주 거론됩니다.

특히 독일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으며 통일원은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기도 합니다.

독일의 경우 우리와 달리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관계에서조차도 통일의 실현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단어속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화롭게 더불어 살면서 통일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논리로 이야기하

는 경우 일부 성급한 분들은 분단고착화로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고착화’라는 단어를 것처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남북한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 동안의 치열한 적대관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보다 뜨거운 통일에의 염원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분단은 고착화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평화의 정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화정착 없이는 적대감의 확대재생산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분단 50년동안의 교훈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데는 경제가 우선시 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그러나 적대관계를 증대시키는 군사분야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민들사이에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를 생각할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군사분야가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경제관계 등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객관적인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이를 위한 길이라고 말하기에는 각박한 것이 어제와 오늘의 사정이라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의 이야기가 가능하겠습시다만 우리는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북한에 대해 말하는 경우 핵심어(key word)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들 합니다.

전문가들이 많은 견해를 제시하고 많은 경우 믿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북한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하여 경제관계 등을 맺어나가는 경우 대단히 어려운

면이 있으며 이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보이고 있는 얼굴은 여러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특히 김일성 사후에 정치적 상징의 문제와 관련하여 김일성이 그들 말대로 위대했다면 그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백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백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서 연유하는 많은 불안을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그들이 하고자했던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일관성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북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관성인 것입니다.

‘나에게서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김정일의 말입니다.

변화를 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북한의 상황을 웅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설치와 위탁가공 등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많으나 북한내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은 대단히 약한 것 같습니다.

희랍신화의 시지프스 신화와 같은 상황, 이것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총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변화거부는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 이러저러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타진해보자고 하는 태도를 경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므로 냉전시대의 방식으로 대응하며 우리도 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은 지난한 일입니다.

국회에서 북한을 보는 시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적인 동시에 동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인 동시에 동포인 북한을 상대로 하여 어떤 경우는 동포의 모습이 어떤 경우는 적의 모습이 크게 보이는 경험을 50년간 겪어 왔습니다.

6.25직후에는 북한을 완전히 적으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충을 직접 겨누지는 않는 남북한 관계로 전개되면서 특히 젊은세대 등에서는 동포의 얼굴을 보려거나 동포의 얼굴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을 어느 한쪽 면만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은 잘 맞지 않습니다.

큰 줄기가 있다면, 따라서 통일을 지향해나가야 한다면, 적의 요소, 적의 모습을 조금씩 줄여가고 동포의 요소, 동포의 모습을 늘려가는 노력이 훗날의 통일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줄기로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되었고 전반적인 추세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통일원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무장공비 침투 사태가 있는 후에 새로운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발이라도 진전하는 문제는 검토후에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당사국과 물론 협의해야겠지만 큰 줄기의 기초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진은 해가되 결국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값을 치루도록 하는 생각을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오늘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다.

적의 모습을 보기보다 동포의 모습을 보아야 할 계제가 될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정부와 함께 생각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원칙에서부터 작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작은 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서부터 그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로 위로 올라가는 식의 사안을 검토하는 방법도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잠수함이 침투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지 모르나 북한에서도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설치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부류가 있다거나 경수로관계 교섭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는데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가지의 작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9월 18일이었습니다.

그 때 뉴욕에서는 경수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용역과 관련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마지막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경수로관련 노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나진·선봉지역에 투자하려 할 경우 북한 노동력의 노임이 낮아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되며 그 노임이 얼마인지의 여부에도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 특구를 선언하면서 그 곳의 노임을 낮게 책정하였는데 80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반노동자의 경우 노임이 월 2,000달러 정도 됩니다.

노임때문에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는 북

한에 투자할 경우 살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80달러는 대단히 작은 액수입니다.

처음 나진·선봉지역의 노임을 80달러로 거론할 때 통일원이나 외무부는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 관점에서의 생각이 미흡했던 것은 80달러에 대해 일본사람은 일제히 비싸다고 한 점이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사회주의국가가 자본주의국가를 처음 배우면서 추진하는 것이 외자유치로 중국의 경우 60달러, 베트남의 경우 50달러인데 북한이 80달러를 요구하는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자설명회가 끝난 후 북한측에서 처음 얼마의 기간동안은 30달러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차원의 말로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진·선봉 이외의 지역에서는 110달러 정도되는 노임이라 합니다.

경수로관계 노임교섭에서 9월 18일 무장간첩침투 사건이 알려지자 협상테이블에서 협상을 계속 진행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북한측에서는 경수로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지 않는 측에서 만들어 낸 사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를 많은 사람들은 남한을 비방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만 우리 대표중에는 북한 내부에서 경수로사업을 저지하려는 부류에서 조작해 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경수로관련 협상은 10월 4일에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북한은 북한의 노동인력이 외국에서 받는 노임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경수로 부지가 북한내이지만 KEDO에 일임하여 외국인과 동일하고 외국에서 받는 노임이 다양하므로 처음은 300달러 정도를 제시했다고 합

니다.

마지막 결렬시에는 300달러가 아닌 700달러 수준을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때는 추석 연휴기간중이었으므로 북측대표들도 평양에 돌아가 추석을 지내도록 하고 협상을 종결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북한측에서 귀로의 비행기 탑승직전에 회의재개를 요청하여 그 회의에서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사항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북측은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그당시 우리가 서명을 할 수 있는 절차적인 상황에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문안정리만 하고 각국에 보고하는 선에서 종료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발표하지 않고 있었으나 북한측 중앙통신은 이제 기공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먼저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외교교섭을 할 때 벼랑끝 전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변하는 경우를 그동안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크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상한 느낌을 가지도록 만들었던 것이 경수로관계 협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빈번히 있는 일입니다.

북한의 붕괴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북한을 유지하고 있는 군부와 당 등 핵심적인 부분이 무너진다고거나 흔들리고 있다고 보기에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핵심부분이 아닌 변두리는 무너지는 것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변화하고 있느냐 않느냐의 측면에서 볼 때 변두리 부분은 상



당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나진·선봉지역 투자설명회의 예에서 처럼 자기식대로 결정하고 약속을 어긴다든가, 투자설명회를 하면서도 잠수함을 침투시키는 그런 상황속에서는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북한과의 관계문제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발생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얼마간 달라졌으리라고 생각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북한이 남한의 경제인들을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남한측이 규제 등을 통해 못가게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으며 경제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과정에서 북한이 천백배 보복하겠다는 성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국민의 누군가가 북한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가 중에는 위험부담을 자기의 책임으로 하고 손실을 입는 경우에도 정부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방북을 허락해 달라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부나 국가에 관련된 문제를 잘 모르시는 분의 생각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비록 개인의 재산이지만 이를 마음대로 유출시킬 수 없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러나 경제인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국민의 재산이란 법제상 개인의 것일 뿐, 동시에 국가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당국간의 대화를 기피하므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 당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꾸 끌려 다니는 것으로 느끼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터무니 없는 자학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여 우리가 안타까와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남북한 당국간에 하고자 하는 일은 모두 북한을 위한 것입니다.

북한이 그 같은 일을 하게되면 여러분이 투자하기가 쉬워집니다.

투자하기가 쉬워지면 북한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북한에게 여러분이 그 점을 깨우쳐주셔야 합니다.

북한에 가고자하는 경우 짐축승인이나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당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런 절차는 필요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은 북한을 위해 좋은 일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북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직접 이야기한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남한기업인이 시찰만하고 돌아가서 소식이 없는 것은 남한당국 때문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남한과 교류·협력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기업가에게 그러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반문했습니다.

그 분이 자신의 소견을 말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의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한정부가 막아 투자 등이 어려운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모든 사람이 정부와 동일하게 생각하란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북한과 경제관계를 맺어갈 경우 당국간에 합의가 있으면 사업추진 등이 훨씬 용이하리라는 점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일 각기 개인의 요구대로 허락하고 북한에서 불미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적대관계에 있는 엄연한 현실의 상황하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는 90년대 이후 평균 4.5%의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속에서도 7%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남북한 격차는 훨씬 크게 됩니다.

금년 상반기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하여 마이너스 6~7%라는 집계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족외에 공장가동율은 30%로 매우 낮으며 70%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나진·선봉지역 투자설명회에 다녀온 미국과 일본인의 이야기를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인은 해방 당시 현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50년후 나진·선봉에 가게 되었습니다.

51년 동안 완전히 잠들어 있던 곳이 나진·선봉이라는 표현이 실감이 났습니다.

일본식의 표현가운데 ‘우라시마파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처럼 50여 년동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인은 북한의 정유공장을 가보았는데 정유공장을 살 뻔하였다는 익살스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살 것같았다는 상황이 북한의 사정입니다.

이에는 다소 과장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태에 직면한 북한, 그러면서도 허장성세를 부리는 북한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량사정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북한의 대체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제 말씀이 북한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0. 평화없는 통일은 무의미

- 『나라미래 준비모임』 강연 (1996. 10. 29)

### 약하면서도 다루기 어려운 북한

최근에 만난 한 독일인사는 잠수함 사건을 보면서 ‘북한이 세다’는 느낌보다는 ‘북한이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약하면 다루기가 쉬운데 아니고, 약하니까 더욱 어려운 것인데, 지금의 북한이 바로 그 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약하면서도 무기가 많으니까 더욱 다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나진·선봉 설명회에 참가를 결정하면서 북한이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말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UNIDO를 통해서 선별해서는 안된다는 우리 입장을 전했습니다.

비엔나 주제 북한대사는 북한정부의 문서로서 선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참가하는 나라도 직업도 차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선별초청을 함으로써 우리기업인 방북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설명회가 있던 바로 그 날 북한 잠수함이 우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일본 참가단이 설명회에 참가하기 위해 동해로 올라갔는데 그 바다

밑으로 잠수함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이 배고프고 약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다루기 쉽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 배급제도의 혼란

북한이 어렵다는 사실은 경제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북한의 경제성장율은 마이너스 6~7% 정도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한 이광수도 남북간 경제에 대해 ‘굉장히 큰 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사람의 생각까지도 배급’하는 배급제도하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줄 게 없어서 배급제도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평양의 경우 처음에 작은 규모로 시작한 농민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래 만난 미국인이 평양의 농민시장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보통강유역에서 농민시장이 열렸는데, 거기에는 북한 화폐가 통용이 안되고 물물교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외화시장에서 살 수 있는 돈은 대단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을 보면 우선 혐오스러운 인상을 보이던 북한 사람이 최근에는 ‘Hello’, ‘Bye-by’를 말하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고 합니다.

경제사정이 나빠져서 배급이 잘 안되고, 시장도 엉망이며, 전과 다르게 외국인을 우대하려한다는 게 요즈음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인 듯 합니다.

## 갈수록 어려워지는 식량사정

북한이 옛날부터 식량수입을 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수입할 돈도 없고 과거 사회주의국가로서 지원해 주던 나라도 없고 해서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본주의로 일반화되어 있는 국제시장에 적응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2억 4천만불 되는 쌀을 보냈는데, 이는 북한에 수해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수해가 겹쳐 사정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사이에 1,000명의 아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살아 생전에 ‘하루에 만 톤’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10,000톤×365일 하면 대충 360만톤이 주식용으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여기에 사료 등을 합쳐 600만톤 정도가 북한의 필요량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생산량과 외부로부터의 지원 등 이것 저것 합쳐서 따져 보면, 대충 250만톤 정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인정할 수 없는 ‘실수’

KEDO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태도를 보면 9월 24일까지는 아주 강경했습니다.

잠수함 침투사건도 ‘KEDO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이 조작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기 직전에 평양의 연락을 받은 북한대표단이 우리 측 안을 다 수용하겠다고 나왔습니다.

희안한 일입니다.

더욱이 희안한 것은 발표문제인데, 보통 남북간 합의가 있으면 우리 측이 먼저 발표하는게 보통인데 북한이 서둘러 먼저 발표해 버렸습니다.

잠수함사건 문제도 초기에는 북한이 굉장한 욕설을 늘어 놓았습니다.

5일 정도 늦긴 했지만 잠수함과 탑승인원이 북한측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분단 50년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KAL기 폭파사건을 포함, 북한이 스스로의 소행이라고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밖에서는 ‘천배 백배’ 보복위협이 있었지만, 북한내에서는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한 번도 보도가 없었습니다.

김정일이 지도하는 인민군의 잠수함이 실수로 좌초한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 평화없는 통일은 무의미

북한은 동포이기도 하고 적이기도 합니다.

6.25때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평화는 아니지만 총 안쏘는 기간’이 지속되면서 북한이 동포라고 하는 생각도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통일보다는 평화가 중요합니다.



평화없는 통일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른바 ‘남북 당사자원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를 두고 통일문제가 남북간의 문제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분단이 우리끼리 한 게 아니고 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의 통일에도 다른 이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통일을 하자면 우리의 통일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4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 러시아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어서는 통일이 어려울 것입니다.

통일논의의 거품을 빼는 게 필요합니다.

통일논의에는 가슴 뭉클한 얘기도 있고, 철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모든 분야의 이론적 논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게 통일로 다 포장되어 있는데 갈래를 치고 거품을 빼야 진짜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통일논의는 냉정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의 혼’ 운운하면서 만주, 시베리아를 얘기하면 중국, 러시아가 싫어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잘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득을 보면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듯하고, 거꾸로 우리가 득을 보면 북한이 배아파 하는 게 지금의 남북한관계입니다.

양쪽이 다 잘되는 방향도 분명 있을 것이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통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3단계 통일’, ‘5단계 통일’ 등 다양한 통일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누가 ‘4단계 통일’을 주장하면 큰 일 날 것처럼 말하는데 이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밑에서 위로 접근하는 통일방식

남북관계에서는 무엇보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수로 사업을 하게 되면 6,000명 정도의 남북한 사람이 작업장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1,500여명이 남쪽에서 올라가고 4,500명에 달하는 북한사람이 현장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의 노임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게 이번 KEDO의 협상의제였습니다.

북한은 노임으로 300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나진·선봉지구에서는 80달러이고 다른 지역은 110달러이지만(대우 남포공장은 110달러) KEDO의 신포지역은 그런 값으로 못한다는게 북한의 입장이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외국에서 일하는 게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측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월남이 30달러, 중국이 60달러, 버어마가 30달러 정도인데 너무 비싸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경제라는 것이 남북이 더불어 할 수 있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잘 모르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남북 접촉방식은 중국과 다릅니다.

중국은 고위급 접촉은 없었지만 200억달러 교역에다가, 연 100만명 정도의 내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남북총리가 8번 만나고 기본합의서를 만들었으나, 문서로만 끝났을 뿐, 실질적 합의사항 이행은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까지는 남북접촉 방식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일이 되려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통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를 적극 모색해 보는 게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11. 판문점이 『화해의 광장』으로 변전 기대

- 『자유의 집』 신축 기공식 치사 (1996. 11. 13)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시공회사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분단의 현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곳, 판문점에서 ‘자유의 집’을 새로 짓기 위한 기공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판문점은 세계사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한 지역으로서 오랜 세월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한의 민족 분단사를 증언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널문리’라고 불리어졌다고 하는 이곳 판문점은 1950년대 초, 6. 25 전쟁종식을 위한 휴전회담의 장소로서 그 이름이 내외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된 휴전회담은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2년 10일 동안 무려 1,076회에 달하며, 이 휴전협정에 따라 판문점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회의장소로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판문점은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휴전선 전역에서 비무장으로 남북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곳 판문점에서 남과 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우리측 지역의 ‘자유의 집’과 북측 지역의 ‘판문각’입니다.

1970년대초 판문점이 다시 한번 남북대화의 장(場)으로서 온 민족의

이목과 국제적 관심을 끌게 되었을 때, 남북 쌍방의 대표들이 이 두 건물을 번갈아 오가며 회담 또는 접촉을 가졌던 것은 많이 알려진 일들입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의 집’ 신축 기공식을 가지는 것은 단지 지은지 30년 이상 경과한 현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는 데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와 이를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쌓고자 하는 정책의지 표명의 일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오늘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현실을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지금 이 시각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때도 없을 것입니다.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세계인이 모두 ‘평화와 번영의 지구공동체 건설’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이 유독 민족 분단의 아픔을 언제까지나 감내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판문점에 ‘자유의 집’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판문점이 남북간 교류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다져나가는 ‘화해의 광장’으로 변전(變轉)되기를 기대해 보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 짓게되는 ‘자유의 집’은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통일의지와 염원이 담겨있는 건축물인 만큼, 통일이 된 후에도 통일과정 및 민족분단사 등을 돌이켜 볼 수 있는 ‘통일자료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번 ‘자유의 집’ 시공을 맡게 된 시공사 여러분께서는 이 시대 분단극복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설계 의도를

살려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튼튼하게 잘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뜻깊은 '자유의 집' 신축 기공식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측 수석대표 차기문 장군을 비롯한 관내 군부대장과 중감위 대표단, 파주시 기관장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2. 사회적 · 문화적 통합에 의한 내면의 동질성 회복이 더욱 중요

- MBC 창사기념 제1회 통일방송 국제포럼 기조연설 (1996. 11. 27)

존경하는 이득렬 사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 MBC 문화방송 창사 35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제1회 통일방송 국제포럼’에 참석하게 된 것을 뜻깊게 여깁니다.

불과 1년전만 해도 언론계에 몸담아 있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일했던 저로서는 참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할수록 우리의 통일문제와 방송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린다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적어도 2가지의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전후의 세계를 동서로 갈라 서로 대립케했던 냉전체제는 이미 오래 전에 종식되었습니다.

이념과 체제의 대립은 지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자유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가치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변화위에서, 과거 타율에 의해 분단되었던 독일과 예멘은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변화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주도하고 계시는 정보화 사회의 도래입니다.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은 인간의 삶에 깊고도 광범한 영향을 주면서 지구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맥루한이 말한 ‘지구촌’은 이미 완전한 현실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가치로 등장한 가운데 이른바 ‘문명사적인 변혁’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입니다.

이같은 변화와 변혁은 국가와 민족, 이념과 종교 등 지난 시대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조류는 이미 세계사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세계사의 대세는 반세기가 넘는 분단시대를 살아온 한국인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체제의 종언은 한반도의 분단을 강요했던 원인이 사라진 것을 뜻합니다.

정보지식사회의 도래는 한반도가 대결과 쟁패의 각축장으로부터 교류와 협력의 가교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반도 통일의 전도는 분명 크게 밝아졌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시대의 동토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북한이 여전히 대남적대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난을 비롯한 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이 그 어려움의 탓을 돌리고 내부를 통제·결속시키기 위해 외부에 ‘적’을 만들고자 하



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미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시인·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이같은 요구는 북측에게 적대와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지난 11월 24일 정상회담을 가진 한·미 두나라 대통령은 북측에게 ‘우리가 수락할 조치를 취할 것’과 4자회담의 수락을 계속 촉구한 것입니다.

변화와 변혁의 이 시대에 북한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는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화해와 협력이라는 세계사의 조류에 우리와 함께 합류해야 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방송은 이미 지상파 방송의 시대를 넘어 위성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속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 차원에서 동시간대를 살게되는 세계화 시대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은 나아가 역사를 바꾸는 데에도 심대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유럽의 방송이 동구의 변혁을 촉진했을 뿐 아니라 유럽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과정에 있어서도 방송의 영향이 참으로 컸다는 점을 우리는 중대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북쪽은 이러한 흐름과 완전히 격리된 채, 플라톤이 말한 어두운 ‘동굴’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시대의 흐름에서 뒤쳐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겨레의 앞날을 위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이 반세기가 넘는 단절의 역사는 남과 북을 서로 완전히 다르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오늘을 살고, 서로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다른 양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남과 북입니다.

독일의 선례는 통일이 단순히 정치나 경제 등의 외형적 통합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체제나 제도의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적·문화적 통합에 의한 내면의 동질성 회복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남북한간에는 독일과는 달리 쓰라린 동족상잔의 경험과 이에 이은 극단적 대처로 불신과 적대감까지 쌓여져 왔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함께 신뢰를 회복하면서 공통의 가치와 사회문화적 기반을 갖는 참다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통일과업의 핵심입니다.

이 일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후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대역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에 따라 통일로 가는 보폭과 민족통합의 속도가 좌우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방송의 역할은 참으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업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남북한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의 기반을 넓혀감으로써 통일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우리 방송의 당면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의 실현에는 남북의 방송분야가 반드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부속합의서 제9조를 통해 남과 북이 신문과 방송분야에서도 교류하고 협력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합의는 하루라도 빨리 실천에 옮겨져야 합니다.

남과 북의 우리 동포들이 서로 상대방의 신문과 방송을 자유롭게 보게되는 그 순간, 통일시대는 활짝 열릴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통일은 이제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대비’의 과제입니다.

통일은 언제, 어떻게 우리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철저한 대비는 확실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밀받침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통일은 하나가 된 보람과 함께 많은 부작용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남과 북의 주민은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을 먼저 느낄 것입니다.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는 한쪽의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벽’을 극복하고 그 어떤 부담과 희생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민족통합을 이루어가는 길에서 한번은 넘어야만 하는 마지막 고개이기 때문입니다.

통일비용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분단비용에는 결코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은 우리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조국은 내적으로는 인류 보편가치가 실현되고, 외적으로는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더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이어 동과 서, 남과 북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튼튼한 가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입니다.

통일을 향한 국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 줄기로 모으고, 통일에 대한 우리의 뜻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모임이 방송의 이러한 막중한 역할을 되새기고 우리의 다짐을 새로이하여 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에 참석차 한국에 오신 분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참석자 여러분들의 건승과 MBC 문화방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대화 관련  
통일부총리 연설집

---

---

발행처 :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인쇄처 : 웃고문화사  
발행일 : 1996년 12월 27일

---

---

